

시론



퇴허자
광주대각사주지
제주퇴허자명상원장

부처님 오신 날, 개천에서 용 나는 날

는 상왕이다. 이레가지고서야 어떻게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겠는가? 라는 말도 나왔다.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였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는 '무한경쟁'을 패러다임으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무한경쟁의 사회질서는 그 장점보다 단점의 폐단이 훨씬 많다. 돈 많은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100m 경주를 할 때 돈 없이 가난한 자녀들보다 마치 50m 전방에서 뛰는 모양새이다. 결승점에 누가 먼저 도달할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SKY대학을 선호하고 사(士)자 직업을 으뜸의 직업군으로 엄지척(?)하는 한 우리사회의 공정과 행복지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무엇보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우선해야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변화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인생 삶의 목표는 최고 학부를 나오고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을 관리하여 마음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는 무법(無法)과 무질서(無秩序), 무규범(無規範)을 통제하여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꽤 오랜 동안 '꼭다거(喫茶去)'모임과 대학의 평생교육, 그리고 각급기관과 일반사회단체 초청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용심론(用心論)이라는 인문학강좌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많은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인문학의 골자는 문학(文學)과 역사(歷史)와 철학(哲學), 곧 문사철(文史哲)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인문학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침의 하나이다. 인문학 강의는 사람의 마음을 미소 짓게 하는 힘이 있다.
불기 2563(2019)년 기해년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개천에서 경험했던 농촌부흥의 '새마을운동'처럼 우리사회에 변화혁신의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心)자에 가로 놓인 3개의 점, 곧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탐진치)

를 숨기고 왜곡했던 상황이 되짚어 규명해야만 해소할 수 있다.
5·18 진상규명의 핵심 쟁점은 최초 발표 명령자를 색출하는 일과 당시 발표 명령자로 지목되는 전두환씨의 광주 행적과 지휘권의 이원화, 1980년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등 보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입증 자료는 미국 측 기밀자료가 비밀의 열쇠라는 게 국민들의 믿음이다. 최근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광산 갑)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미국 측 기밀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듯이 미국측 협조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미국측 기밀자료는 당시 학살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지휘계통의 확인, 발표 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을 규명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을 위한 5·18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5·18 39주년을 맞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초 발표 명령자를 색출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전남도 신성장 4대 분야 선점 전략 주목

전남도가 '에너지, 바이오, 관광, 드론' 등 4대 산업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키로 해 주목된다.
이들 4대 산업은 전남의 우수한 자연조건 및 인프라를 십분 활용한 것으로 타 시·도와 비교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대응 전략으로 평가된다.
우선 에너지산업은 빛가람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내 에너지 최대 공기기업인한전이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된다. 빛가람혁신도시는 '미래 글로벌 에너지산업 수도'를 꿈꾸며 한전공대,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관련 분야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드론 e-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 연계한 그린수소 R&D 및 생산단지 조성 등 관련 분야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이들 3개 분야에 1363억3469원을 투입해 미래 먹거리 선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메디컬 허브 구축을 통한 의료 특세시장을 공략한다. 국가 면역치료 연구원 설립, 국립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화순군 일원에 면역치료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총괄기관인 국가 면역치료 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바이오산업 시장은 암, 치매 등 난치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국내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국립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추진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어 전남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의 국가계획 반영을 최우선 목표로 세우고 크루즈 관광 기반 조성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목포·여수권을 권역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영광에서 부산까지 거점간 연결을 통해 광역 관광벨트화한다는 게 주된 전략이다.
이밖에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국가 유무인기 드론 인종 통합·관계 인프라 구축, 드론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무인기 시장 선두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의 무한경쟁 체제에서 '에너지, 바이오, 관광, 드론' 등 4대 산업이 전남도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5·18 39주기 발표명령자 반드시 밝혀내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39주년을 맞이했지만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왜곡·편협해 활개치고 있다.
지만원이 주장하는 이른바 '폭도들에 의한 광주소요사태'를 비롯 김진태·이종명·김순태 한국당 3인방의 망언이 대표적이다. 전국에서 한국당 3인방을 제명하라는 거센 요구가 빚발쳤지만, 황교안 대표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부당히 재생산되는 이같은 왜곡·편협은 1980년 신군부의 '5·18 낙인'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아만적인 폭력에 맞서 피를 흘려가며 민주화를 외치고 공동체를 수호하고자 희생했지만, 신군부는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광주를 고립시키고 광주항쟁정신을 매도했다.
신군부 집권기간 지역감정을 촉매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폭도들에 의한 소요사태'로 매도해온 것이 오늘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의 뿌리로 뻗어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5·18에 대한 왜곡·편협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해서는 신군부가 광주의 진실

을 숨기고 왜곡했던 상황이 되짚어 규명해야만 해소할 수 있다.
5·18 진상규명의 핵심 쟁점은 최초 발표 명령자를 색출하는 일과 당시 발표 명령자로 지목되는 전두환씨의 광주 행적과 지휘권의 이원화, 1980년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 등 보다 다각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입증 자료는 미국 측 기밀자료가 비밀의 열쇠라는 게 국민들의 믿음이다. 최근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광산 갑)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미국 측 기밀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듯이 미국측 협조가 필요하다.
김 의원은 "미국측 기밀자료는 당시 학살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지휘계통의 확인, 발표 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을 규명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을 위한 5·18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5·18 39주년을 맞아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최초 발표 명령자를 색출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칼럼



임동욱
호남대학교수

무등산 예찬

대기는 서석대나 입석대인 주상절리의 하늘이고 너털의 하늘이다.
무등산은 풀과 나무들의 지엄한 하늘이고 동물들의 하늘이다. 세인봉을 오르는 계곡의 눈발은 불의 전령 복수초의 하늘이고 원호계곡 발원지와 물통거리리는 늘씬 날씬한 노각나무의 하늘이다. 입석대는 기후 변화에 민감한 구상나무의 하늘이고 주상절리로 병풍을 친 서석대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철쭉꽃의 하늘이다. 무등산에서 제일 높은 천왕봉은 하늘에 닿고 싶은 주목의 하늘이고 광활한 초원을 거느린 중봉은 바람으로 빗질하는 역세의 하늘이다. 실개천이 흐르는 상류계곡은 오일향정을 상기하듯 꺾으면 피가 나는 매미꽃의 하늘이고 수많은 단을 새긴 시무지기 폭포는 상수리에 등불을 밝히는 팽이논의 하늘이다. 별이 잘 드는 세인봉은 일월오봉도(日月五峰圖)에 나오는 소나무의 하늘이고 무등산 중턱의 너털은 바위에 맺힌 이슬을 먹고 자라는 왕다람쥐꼬리의 하늘이다. 너털의 바위와 바위 사이에 생긴 공간은 노란목도리를 두른 담비의 하늘이고 무등산의 신갈나무숲은 하늘다람쥐의 하늘이며 도토리를 먹는 다람쥐의 하늘이다. 풍암제는 풍암정에서 들려오는 풍류소리에 파문을 일으키고 멸종위기종 수달의 하늘이

다. 무등산은 산천초목의 생사여탈을 관장하는 암울한 하늘이 아니라 일천 종의 넘는 식물이 공감하며 살아가는 늘 푸른 하늘이다. 무등산은 날마다 햇볕을 내리면서 더운 날에는 구름으로 땀방울을 가려주고 가끔 단비를 뿌려 모든 생명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하늘이다.
무등산은 광주사람들의 하늘이고 광주정신을 키운 하늘이다. 무등산은 산고수장(山高水長)하여 배산임수의 터에 광주와 화순과 담양을 만들었고 광주·전남 사람들의 하늘이 되었다. 언제나 이들을 너그러움으로 감싸고 있는 무등산 꼭대기에는 천왕봉·지왕봉·인왕봉 세 봉우리가 한 곳에 어울려 있다. 바가 노닐고 땅과 사람의 왕이 함께 모인 더 이상 지엄할 수 없는 산을 의미한다. 그 정상의 북측은 북산의 하늘이고 서측은 서석대의 하늘이다. 남측은 입석대의 하늘이고 동측은 광석대의 하늘이다.
천(天)·지(地)·인(人) 삼재(三才). '천은 하늘이고 만물의 근본이며 조물주를 뜻하고 천계(天界)나 태양계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는 지구의, 인은 만물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한다.' 천왕봉은 지왕봉이나 인왕봉과 그 높이를 맞지 않고 오순도순 의종계 지내는 조화(調和)의 하늘이다. 지왕봉은 가르치고 이끌

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화(教化)의 하늘이고 인왕봉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정의로 받아들이는 치화(治化)의 하늘이다. 이 삼재가 바로 광주정신의 모체이고 민주화정신의 산실이다.
내가 앉아있는 무등산의 하늘에 한라산에서 백두산을 잇는 흰 구름이 두둥실 떠있다. 서석대는 밤에 은하를 타고 온 별들과 함께 놀고 낮에는 너와 나 우리가 찾는 꽃망울이다. 그러나 무등산은 별들의 하늘이고 너와 나의 하늘이다. 무등은 언제나 나를 받쳐주고 너를 지지해 주며 우리를 안아주는 큰 덕이 있는 하늘이다. 섬김의 덕은 외롭지 않다. 늘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기 때 문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은 받드는 하늘이다. 무등산은 하늘에 맞닿아 있으면서도 뽀내거나 빠지지 않고 누구에게든 꽃자리를 내어주는 하늘이다. 바로 무등산은 덕을 베풀며 섬기는 리더십의 표본이요 공감의 하늘이다.
그 하늘에 앉아 꿈꾼다. 모든 것을 품어서 키우는 무등의 하늘처럼 한라에서 백두까지 민주주의 꽃을 피우 그 날을.
\*무등산(無等山): 통일산과 때 무진악(武珍岳) 또는 무악(武岳)이었고 고려 때 서석산(瑞石山)이란 별칭과 함께 무등산이라 불렀다.

독자투고

아파트, 안전한 주거공간 만들기에 최선을

지난 2일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그 외 46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치료를 받는 등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재 중 아파트 및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소에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이 미흡하게 되면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높게 된다.
특히 화재사고 아파트 대부분이

상층부로 연소 확대가 쉬우며 연기 확산에 의한 대피가 어렵고 화재전파를 막는 기능을 하는 발코니의 확장주체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소방차전용 주차 황색선을 표시해 소방차량이 유사시 황색선 내에서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심각한 주차난 등으로 인해 일반차량이 황색선내

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있어 유사시 소방차량이 활동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자칫 대형피해 발생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단지에 소방출동로를 확보하는 한편 가정에서 전기, 가스 등 화기취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어린이 불장난 예방조치 강화, 소화기 유지관리 철저 및 적정위치 배치로 유사시를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겠다. /한선근·보성119안전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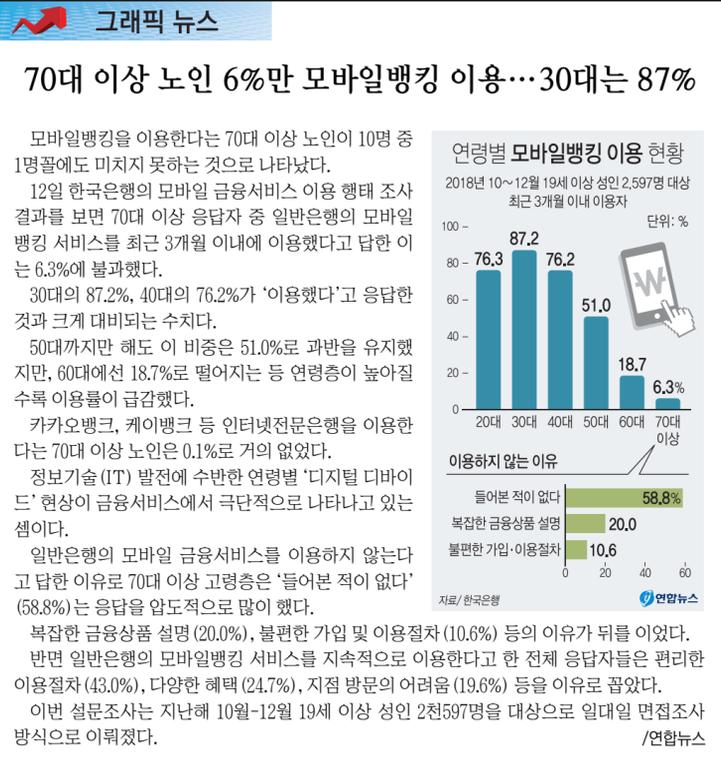
가정의 달 쓸쓸한 노인 극단적 선택 안될 말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농촌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자식들은 객지로 떠나면서 농촌 마을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눈에 띄게 늘면서 우리의 어버이들이 공경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들 소식도 들려온다.
예전 같으면 어른 대접을 받았을 50대 나이는 이젠 젊은이 축에 속할 정도이니 현 농촌의 실태를 알만하

다. 그러나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홀로 사는 독거노인 세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가정사실이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보니 가정의 달은 무척이나 힘들고 쓸쓸한 날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외로움에 지쳐 있지만 사회의 무관심속에 선통 도움을 요청하지 못해

쓸쓸히 노년을 맞고 있는 노인들도 많은 실정이다. 핵가족 사회의 여풍으로 독거노인이 부쩍 늘어나면서 혼자 살다 외롭게 숨지는 사건은 이제 새삼스런 뉴스도 아닌 서글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교적 지역공동체 의식과 유대가 강한 농어촌에서조차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숨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부양기피와 학대 현상 등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마땅히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비참하게 생을 마친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는 결코 아닐 것이다.
출로사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변 이웃이 찾아와 안부를 물어준다면 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우리 주변의 출로사는 노인들을 찾아 한뼘씩 이들을 찾아와 품과 마음을 따듯해질 수 있는 말 한마디를 건네며 안부를 살피는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따뜻한 가정의 달이 되지 않을까 싶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 南成淑 주필 朴俊洙 편집국장 吳星洙
(우)1618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9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정취부 650-2030 경제부 650-2050 사회부 650-2040 문화부 650-2067
지역특집부 650-2060 체육부 650-2065 사 진 부 650-2080 는 실 실 650-2006 서울지사(02) 786-9488
광고문의 650-2099 광고국 650-2072 경영지원국 650-2010 기획사업국 650-2079 업무국 650-2020
FAX 광고국 650-2016 편집국 650-2017 업무국 650-201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국,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